

번역기사의 제목에 관한 연구: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를 중심으로*

강 지 혜
(아주대)

1. 서론

기디온 투리(Gideon Toury)는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한 텍스트가 번역이라고 말한다(33-35). 첫째, 번역의 대상이 되는 원천텍스트가 현재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어야 하고 둘째, 특정 텍스트가 원천텍스트로부터 전환과정을 통해 파생된 텍스트이어야 하며 셋째,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 간에 “설명 가능한(accountable) 관계”(35)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투리는, 이처럼 세 조건을 제시해 놓고서 이들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도착어 문화권의 독자들이 특정 텍스트를 번역으로 수용하면, 그 텍스트는 번역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번역’이 되는 데는 원천텍스트의 존재나 언어 전환 과정의 유무보다도 도착어 문화권에서의 인식의 문제가 우선

* 본 연구는 2005년 아주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한다는, 도착어 문화권 중심적인 번역관을 피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을 이해한다면 『뉴스위크 한국판』은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이다. 미국의 『Newsweek』와 판권제휴 계약을 한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뉴스위크 한국판』에는 ‘번역’ 또는 ‘동일함의 이미지’ 속에 ‘비(非)번역’과 ‘다름’의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Newsweek』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게재하는 이 잡지는 표지의 색상과 레이아웃, 제목의 활자 모양, 기사의 배치와 구성 등이 『Newsweek』와 매우 유사하다.¹⁾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유사성을 통해 ‘동일함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 기사의 구성을 보면 『뉴스위크 한국판』에는 번역된 기사 이외에도 번역되지 않은 기사, 즉 자체적으로 작성한 ‘로컬기사’가 포함되어 있다. 독자가 ‘번역’(번역기사)과 ‘비번역’(로컬기사)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기사 작성자의 이름(한국이름인가, 외국이름인가)과 한국어 제목보다 작은 활자로 표기되는 영어 제목뿐인 셈이다.

그러나 번역과 비번역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애매함은 『뉴스위크 한국판』 번역기사의 제목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뉴스위크 한국판』은 원문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기보다는 편집부에서 새롭게 뽑는다(중앙일보 81-82). 문제는 제목이 독자들에게 번역기사와 함께 하나의 단위로 제시되기 때문에 독자의 입장에서는 제목도 번역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자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번역’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투리의 관점에서 보면,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기사 제목도 ‘번역’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의 제목은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분위기를 표현하고, 기사의 중요성을 암시하며, 독자의 관심을 본문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제목은 “상위텍스트(meta-text)”로서 기사를 “명명하고(naming)”(Iarovici and Amel 443), 기사에 정체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기사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틀(frame)”(Goffman 45)을 제공한다. 가령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기사에 서로 다른 제목, 즉 “정부의 늑장 대응이 부른 참화”와 “사고로 7명 목숨 잃어”가 각각 붙었다고 가정해 보자. 전자의 경우에는 사

1) 본고에서 『Newsweek』라는 표현은 『뉴스위크 한국판』의 원천텍스트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며, 『Newsweek International Edition』과 『Newsweek U.S. Domestic Edition』을 모두 포함하는 총칭어로 쓰이고 있음을 밝혀둔다.

건이 제목에서 ‘참화,’ 즉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으로 규정되면서 그 원인이 정부의 대응방식에 있음이 “전경화(foregrounding)”(Fairclough, *Discourse* 174)된다. 그러나 후자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하나의 ‘사고’로 규정되면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건의 결과가 전경화될 뿐 책임소재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동일한 내용의 기사일지라도 서로 다른 제목이 붙을 경우 각 제목은 본문기사의 맥락을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맥락의 관점에서 독자가 본문기사를 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사 제목을 비롯하여 뉴스 기사 작성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저널리즘 교과서나 사회 전반에서 늘 강조되는 부분이고, 이는 분명히 모든 형태의 기사 작성에서 지향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제한된 지면에 ‘언어적으로 표현’해내는 행위는 필연적 ‘선택(choice)’과 ‘배제/부재(absence)’라는 두 과정을 수반하며, 이는 결국 현실을 구성하는 결과로 이어진다(Fowler 10-12). ‘선택’과 ‘배제’를 통해 특정 사건이 기사에서 하나의 이름을 얻고 제도의 도움을 통해 유포되면, 이와 관련된 사건과 경험들은 그 이름 아래 범주화되고 특정한 “담화(discourse)”를 형성하게 된다(Foucault 27; Fairclough, *Discourse* 55-61). 그런데 이러한 담화는 특정 제도 또는 사회에 존재하는 믿음이나 가치,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주체의 선정과 논의 방식을 통제하는, 하나의 “담화관행(discursive practice)”을 형성하여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규제하게 된다.

본 연구는 1998년 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발행된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의 제목 77개와 원문기사의 제목 77개를 비평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방법론을 토대로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평적 담화분석은 텍스트와 사회적 맥락 분석을 통해 언어사용의 기저에 은폐된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 권력관계, 불평등의 문제, 담화전략의 조작적(manipulative) 측면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방법론이다(Fairclough, *Discourse* 78-86).²⁾ 이러한 비평적 담화분석 방법을 토대로 북한 관련 번역기사

2) 비평적 담화분석은 “명백한 사회·정치적 의제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의 기저에 깔린 권력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정치적 지배를 재생산하거나 이에 도전하는데 담화가 수행하는 역할”(Garrett and Bell 6)을 밝혀내는데 관심을 갖는다.

의 제목을 분석하는 데는, 원문기사 제목에 비해 번역기사 제목이 어떤 의미적, 구조적, 수사적 차이를 보이는지 담화관행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그 분석결과를 사회적, 제도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기 위함이다.

본고에서 분석 자료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발행된 북한 관련 번역기사로 한정된 데는, 이 기간이 남북관계, 한미관계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며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기사 번역도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관련이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적대적 대처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화하면서 지금까지 지배적 담론의 한 축을 형성하던 반북 이념이 국내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 북한과 관련하여 국내 언론사들의 보도이념이 보수에서 진보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의 다양한 지점을 차지한다고 보더라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타자화하는 담론에 대해서는 이 기간부터 대체적으로 거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한동섭 287). 뉴스 보도의 영역을 ‘합의의 영역’, ‘합법적 논쟁의 영역’, ‘일탈적 영역’으로 구분한 할린(22)의 모델³⁾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관련 뉴스의 이데올로기적 지형을 분석한 박정순(14)에서는, 과거 북한에 대한 부정적 보도는 ‘합의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시되었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는 평화통일이 ‘합의의 영역’으로, 북한관련 정치, 사회, 문화 뉴스가 ‘합법적 논쟁 영역’으로, 그리고 ‘안보 위협적 뉴스’가 ‘일탈적 영역’으로 재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미국 언론의 북한 관련 보도는 “위기 부추기기”(이오현 185)라는 표현으로 기술될 만큼 비타협적이고 적대적이며 부정적이었다. 특히 2001년 9·11 사건이 일어나면서 부시 대통령은 2002년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였고, 그 후 한국과 미국

3) 할린에 의하면 ‘합의의 영역(sphere of consensus)’은 특정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의 영역으로, 여기서 언론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나 방관자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가치에 대한 옹호자가 되는 영역이다. 반면 ‘합법적 논쟁의 영역(sphere of legitimate controversy)’은 다양한 시각과 가치들이 투쟁하는 영역이다. 끝으로 ‘일탈적 영역(sphere of illegitimate controversy)’은 사회의 주류 밖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배적 가치와는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언론은 그 일탈성을 드러내며 이 영역의 시각과 가치들을 비판하거나 그러한 시각을 아예 논의 과정에서 배제해 버린다.

은 북한과 관련하여 더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Hwang 67-69).

뉴욕에 본사를 둔 『Newsweek』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사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형성된 담화관행(discursive practice)을 토대로 북한 관련 기사들을 작성할 것이다. 그런데 『뉴스위크 한국판』은 그런 기사를 한국 언론기관의 담화관행에 따라 번역하여야 하기에,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텍스트에는 원천텍스트와는 다른 관점과 평가, 의미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특히 신문 또는 잡지에 실리는 번역기사가 일반적으로 타자의 “목소리 내기(voicing)”(Bahktin 293)로 제시되는 것과 달리,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기사는 ‘동일함의 이미지’를 통해 타자의 목소리가 아닌, 『뉴스위크 한국판』의 목소리로 제시된다. 이는 곧 『뉴스위크 한국판』이 ‘동일함의 이미지’를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한국 독자들을 위해 텍스트를 재맥락화해야 하는 번역상황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텍스트의 작성 문제는 결국 언어문화 전환의 차원을 넘어 담화관행의 간극을 극복하는 문제가 되는 셈이다. 실제로 2003년에 발행된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관련 번역기사 3편과 원문기사 3편을 분석한 강지혜는 행위자에 대한 지시(reference)를 비롯한 각종 언어적 장치를 이용하여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를 드러낸 『Newsweek』 영문 기사가 한국 독자를 위해 『뉴스위크 한국판』 기사로 재맥락화되는 과정에서 북한(북한 정부 및 정책/김정일/북한 관련 사건들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및 기술이 완화 또는 약화됨을 주장한다(Kang, *Recontextualization* 236-39).

본고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번역기사의 제목에서도 나타나지는지를 고찰하고, 번역텍스트의 제목에서 관찰되는 행위자에 대한 지시(reference) 및 서술, 타동성, 수사 전략이 원천텍스트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이다.⁴⁾ 또한 『뉴스위크

4) ‘타동성’이란 행위나 사건을 언어적으로 표현해 낼 때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행하는 것(who does what to whom)’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타동성은 사건의 참여자(participants)와 주절의 동사가 어떤 형태(통사구조)로 나타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Mills 143-144). 영어에서 타동성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언어적 과정(verbal process)’에는 ‘말하기’와 관련된 행동(예, speaking, shouting, singing 등)이, 둘째,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에는 감각 또는 정신 작용, 인지 과정과 관련된 행동(예, thinking, dreaming, deciding 등)이 해당된다. 셋째, ‘관계적 과정(relational process)’은 ‘주체와 속성’의 관계로 나타나며, 흔히 ‘You are X’ 또는

한국판』 제목달기에 대한 지침들을 기준으로 볼 때 실제 제목은 어떤 특징을 보이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⁵⁾ 아울러 본고에서 분석하고자하는 번역기사의 범주에는 해설기사, 인터뷰기사, 기고문 등이 모두 포함됨을 미리 밝혀둔다.

2. 제목의 기능과 실현 양상

제목의 존재 이유와 방식은 본문기사와의 ‘관계성’에 있지만, 그 관계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들이 존재한다. 제목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기사를 끝까지 읽지 않고도 내용이 무엇인지, 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 제목의 역기능적인 측면은 제목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기사가 더욱 난해해지고, 기사 내용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Iarovici and Amel 441-42, 김희진 21). 특히 기사제목이 뉴스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은, 제목 위주의 구독 습관을 가진 독자일수록 제목 위주로 기사 내용을 기억하며, 기사를 직접 읽은 독자조차도 제목이 기사내용에 대한 독자의 해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는바 “틀짓기 효과(framing effect)”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Smith 59-62, Tannenbaum 192-94, Geer and Kahn 185, Price, Tewksbury and Powers 490). 그런데 문제는 뉴스생산자인 기자들은 제목에 대해 본문의 이해를 돕는 기능보다 독자의 시선을 끄는 기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점이다(정태철 209-10, 조수선 10). 특히 조수선은 기사 작성의 주체(기자)와 제목 달기의 주체(편집부)가 구분되는, 뉴스 생산의 역할분담 구조로 인해 기사에 대한 정확한 요약보다도 독자들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목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9-10). 오늘날 “제목 소비자(shopper of headlines)”(English 217)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될 만큼 제목 위주로 기사를 읽는 독자가 증가하고 있기에 제목에서 어떤 언어표현이 사용되는지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You have Y’ 등의 형태로 실현된다. 넷째 ‘물리적 과정(material process)’은 주체의 타동성 행위로 인해 객체가 변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Richardson 54-55).

5) 『뉴스위크 한국판』 제작 관련 지침은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에 비교적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제목은 전보에 사용되는(telegram-like) 것과 같이 짧고 압축적인 언어 표현으로 구성된다(Lindemann 46, 정여훈 89, 한국편집기자협회 51).⁶⁾ 특히 영어 제목에서는 언어의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사 및 관사를 생략하거나, 부정사 구문을 빈번하게 사용하기도 하며, 이러한 형식을 “제목투(headlines)” (Quirk et al. 845-846)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두운법, 언어유희, 패러디 등을 토대로 한 언어사용의 일탈을 통해 본문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요약 및 압축하면서도 독자의 주목을 끌려고 한다.⁷⁾ 한국 신문 사실 제목의 실현

- 6) 제목 작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규범과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도르(Daniel Dor)는, 연관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토대로 기사본문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연관성을 최적화하는 제목이 가장 바람직한 제목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목달기의 10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제목은 짧아야 한다” “제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고 모호하지 않아야 한다” “제목은 흥미로워야 한다” “제목에는 새로운 정보가 있어야 한다” “제목은 독자가 모르는 정보를 전제로 하여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제목에는 뉴스 가치가 높은 이름과 개념이 있어야 한다” “제목에는 뉴스 가치가 낮은 이름과 개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목은 이미 알려진 사실 및 사건을 중심으로 독자와 본문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제목은 독자의 기대와 가정에 맞게 본문을 연결해 주어야 한다” “제목은 본문에 대한 적절한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Dor 715). 도르가 제시한 원칙은, 한국기자협회(268-72)에서 제시한 원칙들과 다소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첫줄에서 정곡을 찌러라”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각행의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뉴스를 담아라” “쉽게 표현하라” “간결하게 만들어라” “단어의 중복을 피하라” “시제를 명확히 갖춰라” “독자의 입장을 고려하라” “감각 있게 리듬 있게” “명예훼손과 형평시비에 주의하라” “기사 성격에 맞는 제목을 달아라”라고 주문한다. 도르는 제목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편집기자들과의 교신을 기초로 하여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목달기의 규범을 제시한 반면, 한국기자협회의 원칙은 실무자들을 위한, 편집기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제목뽑기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7) 이와 관련하여 제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정론지(quality newspapers)와 대중지(tabloids)의 제목을 비교분석한 린드만은, 대중지의 제목은 본문 내용을 요약하지도 않고, 전보에 사용되는, 압축적인 언어형식도 아니며, 심지어 그다지 정보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다(Lindemann 50-55). 이에 대해 도르는 심지어 정론지의 기사제목도 본문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본문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나 누군가의 인용문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Dor 697). 한편 벨은 제목이 본문의 주요 내용을 추상화한 요약적 제목과 본문 내용의 부차적 사건이나 정보에 초점을 맞춘 제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한다(Bell 188-189).

양상을 분석한 김용진(47)에서는, 조선일보의 사실 제목이 “명사구”(예, 경제 성장과 어린이, 경제운동 계획), “확대명사구”(예, 획일성이 빛는 기술, 기술이전에 냉담한 일본), “당위형”(예, 유전공학 지침 마련해야, ‘이건개 폭로’ 근거 밝혀야), “명령형”(예, 경제기획원은 고발하라, 학생들은 자제하라), “평가형”(예, ‘불’에는 죄가 없었다, 한국 외교 너무 단순하다, 어선 나포는 월권), “제안형”(예, 구정을 공휴일로, 문화도서관 설립을 제안한다), “질문형”(예, 잘 살 자질 있나? ‘고려장’이 딴 것인가?)으로 실현되며, 제목은 사실 내용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기사제목의 내용과 형식이 언론기관의 이데올로기와 태도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상한다는 주장들은 특히 비평적 담화분석을 토대로 하는 연구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테오는 제목이 독자의 “인지적 거시구조”(cognitive macro-structure)를 형성하여 기사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전략적 신호(strategic cue)”로 기능한다고 보고, 베트남 이민자 조직폭력단에 대해 보도한 호주 신문기사 제목의 어휘, 통사구조, 정보구조의 분석을 통해 인종주의가 모든 층위에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Teo 14). 또한 플라워듀 외에서는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 이민자들에 대한 홍콩 영자신문 기사의 제목에는, 중국인들에 대한 부정적 함축을 지닌 은유, 중국인의 부정적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 부정적인 이름(label) 등의 사용을 통해 “부정적 타자 제시(negative other presentation)”(Flowerdew et al. 325, van Dijk 39)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신문사실을 분석한 이원표(200)도, 사실의 제목에는 보안법 폐지에 대한 각 신문사의 입장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즉 조선일보는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을, 한겨레신문은 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제목에서 가장 요약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한편 언어문화권에 따라 기사 제목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데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벨이나 니프카는 제목의 구조가 언어별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발데온은 제목이 언어별로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한다(Bell 189, Kniffka 333, Valdeón 160-64). 특히 발데온에서는 BBC, CNN 그리고 로이터 통신의 영어기사 제목과 스페인어 번역기사의 제목 750개를 분석한 결과, 원문 기사 제목의 어휘 의

미 및 구조가 번역기사에서 충실하게 보존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표준화(standardization)”(Valdeón 163) 원칙으로 인해 번역기사의 제목은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한편 김용진(52)에서는 한국 사설의 제목이 영어 사설 제목보다 더욱 다양한 언어 형태를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영어 사설 제목이 명사구를 주로 사용하는 등 더 절제된 문체를 구사하는 반면, 한국 사설 제목에 자주 등장하는 의문문을 비롯한 구어체 표현은 영어 제목에서는 극히 소수라고 전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조선일보 영문판 기사의 제목을 분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조선일보의 영어 번역기사의 제목달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일 가능성이 있고, 영어번역이 아닌, 일반적인 영어기사의 제목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 『뉴스위크 한국판』 번역기사 제목에 대한 비교 분석

3.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평적 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의 방법론을 토대로 『뉴스위크 한국판』 북한 관련 번역기사의 제목과 『Newsweek』기사의 제목을 비교분석한다. 비평적 담화분석은 텍스트가 생성 및 유포되는 사회·역사적 상황에 관심을 두고, 특정 담화가 사용되는 ‘원인(why)’과 ‘경로(how)’를 규명하는데 일차적 관심을 갖는다(Fowler 222; Fairclough, *Discourse* 78-84). 이를 위해 텍스트의 ‘형식(form)’과 ‘기능(function)’을 분석하고, 그러한 ‘형식’과 ‘기능’이 텍스트가 생산 및 소비되는 과정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탐구하고, 이를 거시적인 사회적 요인들과 관련지어 분석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이다(Fairclough, *Analyzing* 2-3). 기존의 언어학적 분석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형식과 쓰임을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describe)하는 데 주된 관심을 가진 반면, 비평적 담화분석은 언어구조의 밑바탕이 되는 사회적 과정과 구조 그리고 이를 지속시키는 권력관계, 이데올로기를 추적하고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담화가 사회적 과정과 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과정과 구조를 강화하고 고착시키고 재생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비평적 담화분석에서는 텍스트의 ‘형식’과 ‘기능’ 분석의 주요 도구로 할리데이의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을 이용한다(Halliday, *Language* 94). 체계기능문법에서는 언어사용자가 의사소통을 위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사용 가능한 수많은 언어표현(options)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며, 이러한 ‘선택’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 소통을 이룬다고 본다. 특히 체계기능문법에서 의사소통의 의미는 언어의 “개념적 기능(ideational function)”, “대인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 “텍스트적 기능(textual function)”(Halliday, *Introduction* 63)을 통해 실현된다. “개념적 기능”은 언어의 ‘지시적(referential)’, ‘경험적(experiential)’, ‘논리적(logical)’ 영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로 어휘의 선택이나 타동성(transitivity)을 통해 표현된다. 한편 “대인적 기능”은 의사소통 참여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으로 주로 서법(modality)과 화행(speech act)을 통해 나타난다. 끝으로 “텍스트적 기능”은 정보의 구성, 배열, 제시와 관련된 기능으로 정보의 전경화(foregrounding)/후경화(backgrounding),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수사구조 등으로 실현된다(이원표 195-196). 이 같은 체계기능문법의 범주들은 비평적 담화분석에서 구체적인 언어사용과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구조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번역텍스트 제목에 사용된 미시적인 언어표현과 거시적인 사회문화적 구조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시도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또 다른 개념은 “제도적 번역(institutional translation)”(Kang, *Institutional in press*)이다. ‘제도적 번역’은 특정 기관(예, 기업, 국제기구, 정부부처)이나 제도(예, 사법기관, 의료시설)등 구체적인 제도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을 뜻한다. 특히 개인적 필요에 의해 번역자 자신이 수행하는 번역과 달리 제도적 번역에서는, 번역 대상 텍스트 선정, 번역 수행의 주체와 조건, 번역의 원칙과 절차, 독자들의 번역텍스트 수용 방식과 맥락, 번역 방법과 전략 등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따라서 제도적 번역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번역 과정과 결과, 번역 주체와 독자 등의 문제를 탐구한다. 본고에서도 이 같은 제도적 번역이라는 관점에서 『뉴스위크 한국판』 북한 관련 번역기사의 제목 달기의 문제를 고찰한다.

3.2 분석자료

3.2.1 『뉴스위크 한국판』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뉴스위크 한국판』은 1991년 중앙일보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사(The Washington Post Company)에서 발행하는 『Newsweek』와 판권 제휴계약(일명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어로 발행하기 시작한 시사지이다(한국언론재단 53). 『뉴스위크 한국판』은 번역 및 편집이 확고한 원칙과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⁸⁾ 『뉴스위크 한국판』은 번역텍스트 제작의 원칙과 번역관을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뉴스위크 한국판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의 시사주간지 Newsweek를 단순히 우리말로 옮긴 ‘번역판’이 아니라 원문에 충실하면서도(정확성 · Accuracy) 한국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가독성 · Readability) 문화 차이를 헤아려 번안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취재 · 보도하기도 하는 ‘한국판’이다. (중앙일보 11)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뉴스위크 한국판』에서는 당사가 발행하는 잡지가 ‘번역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에서는

8) 강지혜(25)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뉴스위크 한국판』에서 번역텍스트가 제작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차번역을 담당하는 ‘리라이터’가 『Newsweek』의 기사를 번역하면 감수를 맡은 ‘네이티브 체커(Native Checker)’가 문화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오역과 난해한 부분을 원천텍스트와 대조 및 확인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그 다음 과정은 『뉴스위크 한국판』의 주간(主幹)이 ‘톱체커(top checker)’라는 역할을 맡아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오역과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 윤문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번역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리라이터와 톱체커의 역할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은, 리라이터는 원천텍스트의 내용을 가감 없이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는 반면, 톱체커는 번역자가 번역한 텍스트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이다. 신문 또는 잡지 기사 번역시 지면 제약으로 인해 생략 및 삭제는 불가피하지만, 『뉴스위크 한국판』의 원천텍스트 번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텍스트의 양적 팽창을 해결하는 주체가 번역자가 아닌 톱체커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 어떤 내용이 생략 또는 삭제되느냐에 따라 원천텍스트에서 제시된 사건 및 경험이 번역텍스트에서는 다르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이란 “단순히 우리말로 옮긴” 것을 뜻하기에 정확성과 가독성이 존중되고 문화적 차이를 헤아려 한국어로 옮기는 것은 “번역”이 아닌 “번안”이라는 것이다.⁹⁾ 이처럼 『뉴스위크 한국판』에서 “번안”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우선 번역기사가 수용되는 도착어 문화권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번역기사 수용의 조건에 맞도록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천텍스트의 의미, 표현, 문체 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는 도착어문화권에서 ‘시사잡지’ 또는 뉴스담화(news discourse)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 문체 그리고 담화관행을 고려하여 한국어 기사를 작성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이 명시된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에는 『뉴스위크 한국판』이 “번역 저널리즘이라는 새로운 장르”(중앙일보 7)를 개척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뉴스위크 한국판』이 수행하는 일이 “번역”과 관련된 일임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따라서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에 대한 개념은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관은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도 확인된다.

아무리 정확한 번역이라 해도 그 의미가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글은 의미가 없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의미를 중심으로 발상을 과감히 뒤집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표현하는 순발력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16)

“영어 단어 하나하나에 얽매이지 않고” 번역하는 것과 “발상을 과감히 뒤집어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표현”한다는 것은 번역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남기는 타자의 흔적이나 이국적인 요소들을 자국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즉 투리(Toury)의 “번역규범(translation norm)”⁽⁵⁸⁾을 중심으로 표현한다면, 『뉴

9)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기사 작성을 ‘번역’으로 보는 필자의 관점과 달리,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에서는 ‘번안’과 ‘번역’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기사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은 번역기사가 ‘번역’이 아닌 ‘번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후행 맥락에서는 ‘번역’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

스위크 한국판』에서는 “수용가능한(acceptable)” 텍스트 구성을 지향하는 초기 규범(initial norm)¹⁰⁾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도착어 문화권의 관점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요소들은 “자연스러운 언어”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도착어 문화권 지향성(target orientation)”은 『뉴스위크 한국판』이 근본적으로 라이선스 잡지로서 해외 유명 잡지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원천텍스트와의 “동일함”을 토대로 제작 및 발행되고 독자들에게 의해 수용된다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뉴스위크 한국판』은 한국 언론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편집부에서 제목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중앙일보 81-82), 번역기사 제목 달기의 원칙을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제목은 독자가 기사를 읽고 싶도록 유도하는 문패다. 영문판 제목을 참조하여 기사의 내용에서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목은 서술형으로 붙인다. 명사형이나 의문형으로 끝나는 것은 피한다.
- 제목은 가급적 쉬운 말로 붙인다. 어려운 고사성어,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 일반화되지 않은 조어, 혐오감을 주는 비속어 등은 피한다.
- 제목은 간결하게 붙이고, 영문판 레이아웃의 길이에 맞춘다.
- 제목 1행은 독립된 문장이 되도록 한다. 문장이 다음 행으로 이어져 의미 전달에 혼란을 경우는 피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뉴스위크 한국판』은 비교적 구체적인 제목달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번역기사에 달린 제목이 이 같은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는지는 후행 논의(3.3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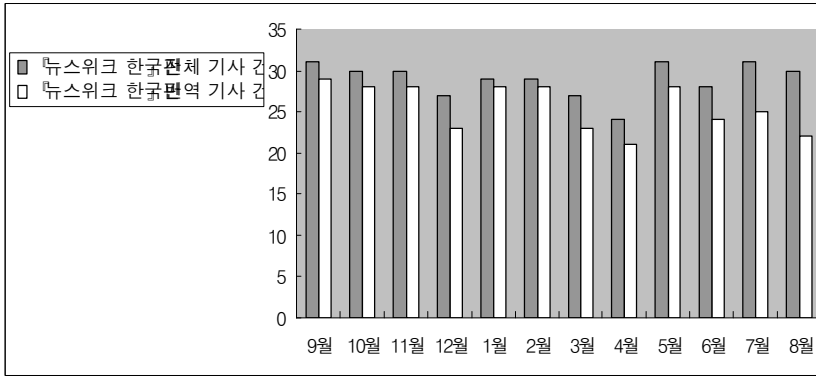
10) 투리의 초기 규범(initial norm)은 번역을 수행하는 번역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사항, 즉 도착어 문화권에서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텍스트를 만드는 것과 원천텍스트의 규범을 따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작용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투리는 전자를 선택할 경우 “적절한(adequate)” 번역텍스트를, 후자를 선택할 경우 “수용가능한(acceptable)” 텍스트를 구성하게 된다고 말한다.

3.2.2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관련 번역기사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한국간의 관점과 담화관행 차이의 문제는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 대상 기사의 선정 문제에서도 나타날 것이다.¹¹⁾ 즉 어떤 『Newsweek』 기사를 선정하여 『뉴스위크 한국판』에 게재할 것인가의 하는 문제에 있어 흥미로운 경향이 관찰된다. 1991년 창간 당시 『Newsweek』 발행사인 워싱턴 포스트 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중앙일보는 로컬 기사를 실을 수 있는 상한선을 15%로 합의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그 제한을 없애고 로컬 기사 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언론재단에서 발행하는 『해외 매체의 국내 수용』에서는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는 기사들을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본사와 의견의 일치를 본 것”(한국언론재단 54)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000년을 전후하여 로컬기사의 게재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게재된 로컬기사의 비율을 조사한 한국언론재단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로컬기사는 전체 기사의 11%로 나타난다. 이는 곧 번역기사가 전체의 89%를 차지함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¹²⁾

11) 본고에서는 『뉴스위크 한국판』만을 분석대상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내 타 언론기관과 비교적 관점에서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기사 번역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뉴스위크 한국판』을 발행하는 중앙일보가 냉전적 대결보다는 화해와 교류를 수용하는 대북정책이 등장한 1990년대 이후 북한 관련 보도에 있어 보수적 시각을 대변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일보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한겨레보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영애 219).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관련 기사의 논조에 드러난 언론기관의 이념적 지향성에 대해 연구한 윤영철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모두 보수적 중도노선을 견고 있지만, 중앙일보가 동아일보에 비해 중도노선 쪽으로 더 기울었다는 사실 분석의 결과”(76)를 밝히고 있다. 또한 이준웅도 중앙일보의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인 조선일보와 ‘긍정적’인 한겨레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51-52)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국내 언론기관들도 미국 언론기관들에 비해서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는 각 기관들이 발행하는 신문기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난다(Hwang 67-69, 이오현 185).

12)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보면 “뉴스위크 한국판의 특징은 본지 기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실고, 편집 역시 본지와 거의 유사하다”는 한국언론재단의 진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 대상 기사 선정에는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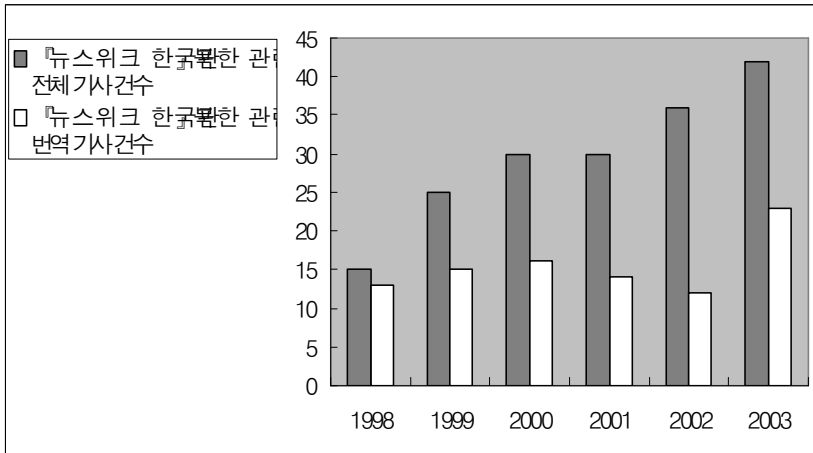


<그림 1> 2000년~2001년 『뉴스위크 한국판』 게재 전체기사 대 번역기사 수
(한국언론재단 55를 토대로 재구성)

그러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뉴스위크 한국판』에 게재된 북한 관련 기사를 보면, 전체기사 대비 로컬기사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것을 있다 (<그림 2> 참조).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뉴스위크 한국판』에 실린 기사들(북한 관련 기사 포함)의 경우 번역기사의 비율이 전체 기사 중 약 80~90%를 차지하는 반면, 북한 관련 전체 기사 중 번역기사가 2001년에는 50%, 2002년에는 33%만을 차지하는 것을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물론 북한의 “뉴스 가치(news value)”가 『Newsweek』 독자들보다는 『뉴스위크 한국판』 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크고,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뉴스위크 한국판』에서 더 많은 북한 관련 기사가 필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 기간 동안 북한의 핵문제, 인권 문제 등이 해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Newsweek』에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북한 관련 주제들을 다루었고, 실제로 이 기간 동안 『Newsweek』에 실린 북한 관련 기사들 중에서도 『뉴스위크 한국판』에 의해 번역 대상 기사로 ‘선택’되지 않고 ‘배제’된 기사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뉴스위크 한국판』의 필요가 상당부분 ‘로컬기사’로 채워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결국 『Newsweek』의 북한 관련 기사가 주제, 관점, 가치, 담화관행 등에 있어 『뉴스위

발어문화권 중심주의(source orientation)의 규범이 관찰된다.

크 한국판』 제작 주체와 독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1998년~2003년 『뉴스위크 한국판』 게재 북한관련 전체기사 대 번역기사 (Kang 239를 토대로 재구성)

3.3 텍스트 분석 결과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의 제목과 원문기사의 제목을 비교해 보면 번역기사의 제목에서는 주체화(agentivization), 명명(naming)과 지시(reference)의 전환 및 첨가, 서술(predication)의 전환 및 첨가, 명시화(explicitation), 화행(speech act)의 전환, 직접인용의 첨가 및 전환 등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본 절에서는 제목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부제와 리드, 본문기사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다.¹³⁾

3.3.1 주체화

‘주체화’란 원문기사 제목에서 언급되지 않은 행위의 주체(actors)가 번역기

13) 하나의 제목이 여러 범주에 동시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특징들 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다.

사 제목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제목에서는 주어/주체가 자주 생략되는데(예, The Siege Mentality, Going Ballistic, A Glimpse Inside), 생략이 유발하는 의미의 모호성은 독자로 하여금 기사 본문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ronrod and Engel 686). 14) 물론 원문기사의 제목에도 ‘Putin Plays His Hand’, ‘Kim is the Key Danger’ 등과 같이 행위자가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Newsweek』에서 흔치 않은 경우이다.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에서는 원천텍스트 문장에 주어가 드러나 있지 않을 경우에도 번역텍스트에서는 “주어를 찾아주어야 한다”(중앙일보 17)고 명시한다. 따라서 번역텍스트의 제목달기에서 ‘주체화’ 현상이 두드러진 데는 ‘생략된 주어의 회복’이라는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지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번역텍스트의 주어/주체로 누가 또는 무엇이 ‘선택’ 되는가 하는 문제다. 번역텍스트의 제목을 보면, 원천텍스트에 숨어있는 주어/주체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주어/주체가 등장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번역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행위자는 북한/김정일/북한의 정책, 한국/김대통령/한국의 정책, 남북한, 미국/클린턴 또는 부시/미국정부 순이다.

(1)

(ㄱ) Is That a Dove?

북한, 대화의 물꼬 트자고 손짓

(ㄴ) Warming Up to Washington

김정일은 문을 열 준비가 돼 있었다

(ㄷ) Traveling Behind Enemy Lines

클린턴이 평양행을 원했다

(1ㄱ)~(1ㄷ)은 원문 기사에 나타나지 않은 행위의 주체가 번역텍스트에서 전경화되는 경우이다. (1ㄱ)의 원천텍스트(ST)에서는 은유와 ‘질문’이라는 화행을

14) 이러한 현상을 크론로드와 앵겔은 “첩경(shortcut)”이라 지칭한다(Kronrod and Engel 686).

사용하여 김정일의 행동이 ‘평화의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독자에게 묻고 있다.¹⁵⁾ 그러나 번역텍스트(TT)는 ‘북한’이 행동의 주체가 되어 ‘대화의 물꼬’를 트자고 ‘손짓’한다는 또 다른 은유적 표현을 토대로 기술하고 있다. TT에서는 북한이 주체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손짓’ 하는 것으로 제목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의도가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재구성되고 있다. (1ㄴ)의 ST에서는 시제 표지가 없는 ‘비정형 절(non-finite clauses)’을 사용하여 ‘美정부에 가까이 다가가는/美정부에 친해지려는(Warming up to Washington)’이라는 제목이 제시되고 있지만, TT에서는 ‘김정일’이 주체가 되어 ‘문을 열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진술’의 화행이 과거시제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의 생각이 매우 단정적이고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다.

(1ㄷ)의 ST에서는 ‘적의 전선(enemy lines)’을 넘어 적진으로 들어가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되고 비정형 절이라는 형식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TT에서는 ‘클린턴’이라는 주체가 명백하게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동성이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으로 표현되어 주체의 감정 경험, 정신 과정 중심으로 제목이 제시되고 있다.¹⁶⁾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ST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북 화해’에 대한 것이지만, ST에서 작동하는 ‘틀’은 ‘적의 전선(enemy lines)’으로 표현되는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 또는 ‘전쟁’이다. 반면, TT에서 전경화된 주체는 ‘클린턴’과 ‘평양行’이며, ST와 같이 ‘전선을 넘어 적진 방문하기(Traveling Behind Enemy Lines)’라는 의미는 어디에도 없다. 다음은 ST에는 언급되지 않은 행동의 주체가 TT에서 언급될 때 문장의 주어가 아닌 ‘확대명사

15) 『뉴스위크 한국판』번역기사의 제목은 원문기사 제목에서 직접 번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TT’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TT’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원문기사의 제목을 지시하는데는 ‘ST’를 쓴다.

16) (1ㄷ)의 ST에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제목에서는 알 수 없고, 부제인 ‘북한의 제2인자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올브라이트는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North Korea's Number-Two Man Talks Peace In Washington, And Albright Will Be Visiting Pyongyang)’를 읽어야 ‘적진’으로 들어가는 주체들이 ‘북한의 제2인자’와 ‘올브라이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행동의 주체와 시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지면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사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전략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구'의 형태로 나타난 경우를 보자.

(2)

How Charming

유화공세 펼치는 김정일

(2)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으로 바쁜 틈을 타 한국, 일본, 중국 등 인접 국가들에 대해 유화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김정일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다. ST에서는 '매력적(charming)'인 것과는 거리가 먼 김정일의 행동을 두고 '매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을 비꼬고 있다. 그러나 TT에서는 행위의 주체인 김정일이 전경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유화공세를 펼친다는 사건이 '물리적 과정(material process)'으로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전제(presupposition)'라는 언어형식이 사용되면서 유화공세를 펼치는 김정일의 행동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즉 ST에서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표현과 평가가 TT에서는 특정 행위를 하는 주체, 즉 김정일에 대한 묘사로 전환된 것이다.

3.3.2 명명과 지시의 첨가 및 전환

텍스트에서 대상을 지시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은 글쓴이가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는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대상을 어떻게 제시하는지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사물, 사건, 사람 등을 가리키는데 '선택'된 표현은 "지시적 의미(referential meaning)" 이외에도 "지표적 의미(indexical meaning)" (Blommaert 11)를 가진다. 여기서 '지표적 의미'란 사회적 의미인 동시에 화자가 말한 바와 발화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을 연결시키는, 해석적 단서를 제시하는 의미이다. 특히 기사 작성 시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할 때 특정 '사회적 범주(social category)'로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 사회적, 정치적 목적"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Reisigl and Wodak 47). 반다익은 이런 "지시적 전략(referential strategies)"은 "긍정적 자기 제시(positive self-presentation)"와 "부정적 타자 제시(negative other-presentation)"(van Dijk 39)의 원칙을 따른다고 주장한다. 즉 글쓴이와 '같은 편'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명명' 또는 '지시'하고, '다른 편'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

용한다는 것이다. 다음 예들을 살펴보자.

(3)

(ㄱ) Monsters No More

다시 오른 금강산서 목이 멘 통일염원

(ㄴ) Spy Catch of the Day

시험대 오른 DJ 햇볕정책

(ㄷ) Coming Out Party

햇볕이 녹인 '동토의 왕국' 평양이 변한다

(3ㄱ)~(3ㄷ)에서는 ST에 없는 '햇볕', '통일', '금강산', '평화' 등의 어휘가 TT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곧 TT가 '화해'와 '통일'의 틀을 토대로 제목을 제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ㄱ)의 ST는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이 "더 이상 괴물이 아님(Monsters No More)"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목에서 '전제(presupposition)'가 되는 것은 북한이 과거에는 괴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TT에는 '괴물'과 같은 어휘가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ST에 없는 '금강산', '통일염원'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 사람들에게 북한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분단과 이산의 아픔을 지닌 '동일한 민족'이며 북한의 '우리의 일부'라는 것이다.

(3ㄴ)의 ST에서는 동해안에 침투한 북한의 대남 잠수정이 한국 해군 함정에 의해 예인된 사건을 다룬 기사를 '첩보원/첩보용 잠수정 적발(Spy Catch)'이라는 제목으로 제시하고, 그러나 TT에서는 잠수정에 대한 언급 대신 'DJ 햇볕정책'의 문제를 전경화하고 있다. ST에서는 '적대관계'의 틀 중심으로 '첩보', '적발' 등의 어휘가 사용된 반면, TT에서는 '남북 화해'의 틀을 토대로 'DJ(의) 햇볕정책'이 전경화되고 있다.

(3ㄷ)의 ST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개방 조치들을 취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데뷔 축하 파티(Coming Out Party)'라는 제목이 달려 있다. 그러나 TT는 '햇볕(정책)'이 '동토의 왕국' 북한을 녹였음을 '전제'라는 형식으로 제시하면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평양이 변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타동성이 낮은 하나의 사건(데뷔축하파티)으로 명명된 ST와 달리 TT에서는 '화해'의 틀을 토대로 하는 '햇볕'과 '북한의 변화'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는 것이다.

(4)

(ㄱ) See Ya, Suckers

속병 앓는 북한 진출 기업들

(ㄴ) Seeing Hell Through a Survivor's Eyes

탈북 소년이 눈물로 그린 ‘굶주린 사람들’

(4ㄱ)~(4ㄴ)도 명명 또는 지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제목이 제시된 예들이다. (4ㄱ)의 ST에서는 ‘다음에 또 보자, 봉들아(See Ya, Suckers)’라는 제목을 통해 북한 진출 한국기업들이 북한 정부에 이용당하는 ‘봉(suckers)’이 되고 있음이 전경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어체 표현(예, ‘ya’, ‘suckers’)의 사용에서 나타나듯이 북한 정부가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목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의 ‘출처(attribution)’도 마치 북한 정부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TT에서는 북한의 ‘의도적이고 일방적인 한국 기업 이용’을 암시하는 ‘봉’과 같은 표현은 없고, ‘확대명사구’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오히려 북한 진출 기업의 관점에서 이들 기업의 ‘속병 앓음’이 ‘전제’로 제시되고 있다. 무시와 조소의 태도 그리고 부정적 평가가 수반된 ST의 ‘봉(suckers)’이라는 표현이 TT에서는 ‘북한 진출기업’이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TT에서는 한국기업의 ‘고뇌’하는 모습만이 전경화되고 있다.

(4ㄴ)의 ST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소년이 ‘생존자(survivor)’로, 북한이 ‘지옥(hell)’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TT에서는 ‘생존자’가 ‘탈북소년’으로, ‘지옥(hell)’은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즉 ST의 자극적인 ‘생존자’와 ‘지옥’ 같은 표현이 TT에서는 ‘탈북’, ‘소년’, ‘눈물’, ‘굶주림’으로 전환되어 ‘도움이 필요한 북한’, ‘가엾은 북한사람들’의 모습을 전경화되고 있다.

3.3.3 서술의 전환 및 첨가

‘서술’이란 사람, 사물, 사건 등의 속성(attributes) 또는 특성(qualities)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서술은 앞에서 살펴본 ‘지시’나 ‘명명’과 마찬가지로 서술의 대상과 관련하여 ‘어떤’ 속성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글쓴이와 서술의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 준다. 특히 “‘우리’ 대 ‘그

들(us vs. them)’의 이분법적 대립은 서술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표현들이 사용되고, ‘그들’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언어 표현들이 사용된다.¹⁷⁾ 이러한 대립적 구분이 『뉴스위크 한국판』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원천텍스트의 중립적인 제목이 번역테스트에서는 긍정적인 가치나 평가를 나타내는 제목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5)

(ㄱ) Korea's Mr. Sunshine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빛났다

(ㄴ) 'Sunshine' is for Tough Guys

더욱 빛이 난 김대통령의 ‘햇볕정책’

(ㄷ) The Nuclear White Elephant

원조와 개혁을 한데 묶은 김대중의 현실적 북한정책

(5ㄱ)의 ST는 “한국의 ‘미스터 햇볕’/‘한국의 햇볕 대통령’(Korea's Mr. Sunshine)”, 즉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언급하는 제목이지만, TT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빛났다’라는 서술을 첨가한 제목이다. (5ㄴ)와 (5ㄷ)에도 유사하게 긍정적인 서술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하여 첨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5ㄴ) ST의 “‘햇볕’은 불굴의 사나이들이 선택하는 것(‘Sunshine’ is for Tough Guys)”이 TT에서는 “더욱 빛이 난 김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되어 김대통령과 ‘햇볕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명백하게 ‘전제’라는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 제목이 달린 번역기사의 부제에서도 “역대 한국 지도자 중 북한 도발에 이처럼 단호하게 대처한 경우는 없어”라고 밝히고 있어 부제에서는 번역기사의 제목의 긍정적인 평가를 더욱 강조하여 확인해 주고 있다.

(5ㄷ)은 경수로 원전 건설 계획을 다룬 기사의 제목이다. ST는 북한에 더 시급한 것은 경수로보다도 경제원조라는 관점을 반영한 ‘원치 않는 경수로 선물(The Nuclear White Elephant)’이라는 표현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TT에서는 경제원조와 개혁을 패키지로 묶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전경화시키

17) 이처럼 담화 속에서 서술이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데 대해 “서술전략(predicational strategies)” (Reisigl and Wodak 54)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북정책에 대해 ‘현실적’이라는 서술을 첨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예에서 볼 수 있듯이 ST에서 나타난 서술이 TT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다.

(6)

North Korea's Tragic Misunderstanding of Bush Administration Policy

미국은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6)에서 ST의 ‘Tragic Misunderstanding’, 즉 ‘비극적 오해’라는 부정적 평가(북한의 판단이 잘못되고 비극적이라는 평가)를 포함한 서술이 TT에서는 생략되었고, TT는 미국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해 ‘진술(assertion)’의 화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ST에서는 북한의 잘못되고 비극적인 판단을 전경화하여 북한에 대해 ‘탓하기(blaming)’ 중심의 제목이 실현된 것과 달리 TT에서는 북한에 대한 특별한 서술 없이 북한에 대한 미국 입장을 전경화하여 전달한다.

3.3.4 명시화

‘명시화’는 번역텍스트 제목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현상으로, 원문 기사 제목에서 후경화/전제되어 있는 내용이 전경화되어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현상이다. 또한 ST에서 전경화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언급된 내용이 번역기사에서는 설명이 첨가되어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번역학에서 명시화는 번역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급된 바 있지만(Blum-Kulka 22, Baker 180), 여기서는 『뉴스위크 한국판』 북한 관련 번역기사의 제목달기라는 맥락에서 명시화 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고찰한다. 특히 명시화를 위해 ‘선택’되는 정보는 어떤 것이며, 선택된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전경화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7)

(ㄱ) A Second Honeymoon

남, 북한 두 번째 화해의 허니문

(ㄴ) A Glimpse Inside

담 너머로 엿본 ‘배고픈 북한’

(ㄷ) Breaking the Ice

‘정주영과 소떼’ 해빙에 주춧돌

(ㄹ) Falling Off the Radar Screen

외면당하는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

(7ㄱ)~(7ㄷ)을 보면 ST의 내용이 TT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7ㄱ)에서는 ‘허니문(honeymoon)’의 속성과 관련하여 ‘화해’라는 정보가, (7ㄴ)에서는 ‘안을 엿보는 행위(A Glimpse Inside)’의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하여 ‘배고픈 북한’이라는 정보가, (7ㄷ)에서는 ‘해빙(Breaking the Ice)’과 관련하여 ‘정주영과 소떼’ 그리고 ‘주춧돌’이라는 해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보가, (7ㄹ)에서는 ‘레이더에서 사라지는/외면당하는 (Falling Off the Radar Screen)’ 것이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이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첨가되었다. 즉 부가적인 정보의 첨가를 통해 명시화된 내용은 ‘남북화해’와 ‘가난한 북한’의 틀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명시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8)

(ㄱ) Roll Over, Kim Il Sung

북한 개혁의 걸림돌은 김일성

(ㄴ) Mr. Kim Goes to China

김정일 訪中 계기 외교노선 큰 변화

(ㄷ) A Failure to Communicate

돌파구 찾지 못하는 북핵 2차 6자회담

(8)에서는 명시화가 ‘원인(cause)’, ‘결과(result)’, ‘시공간적 배경(temporal/spatial background)’ 위주로 나타난다.¹⁸⁾ (8ㄱ)에서는 ‘저리 굴러가, 김일성(Roll Over, Kim Il Sung)’이라고 말하는 ‘원인’이 명시화된 예로서, 사망하여 무덤에 있는 김일성이 현재 ‘북한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TT에서 구체적으로

18) (8ㄱ)~(8ㄷ)에서는 ST의 ‘정보성(informativity)’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TT에서는 더욱 정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가 추가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보의 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 중 어떤 정보가 ‘선택’되는가가 중요하다.

제시되고 있다. (8ㄴ) TT에서는 오히려 ST에 없는 ‘결과’ 또는 ‘평가’가 전경화되었다. ST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다(Mr. Kim Goes to China)’이지만 TT에서는 방중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訪中 계기 외교노선 큰 변화”라는 방중의 ‘결과’도 전경화하고 있다. (8ㄷ)의 경우 ST인 ‘의사소통의 실패(A Failure to Communicate)’가 일어난 ‘공간적 배경’, 즉 ‘북핵 2차 6자회담’에 대한 정보가 TT에서는 명시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추가되는 정보는 주로 한국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TT에서 일어나는 명시화는 ST 정보의 부분적인 생략을 동반하기도 한다.

(9) A Diplomatic Breakthrough on the Korean Peninsula

부시의 마음이 실용주의로 기울었다

(9)의 TT에서는 ST에 등장하는 ‘외교적 돌파구(A Diplomatic Breakthrough)’의 구체적인 원인/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부시의 마음이 실용주의로 기울었다’라는 내용은 ‘외교적 돌파구’의 원인/내용으로써 명시화 현상을 보여주지만, 또한 공간적 배경인 ‘한반도에서(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정보는 생략되고 있다.

3.3.5 화행의 전환

번역기사의 제목에는 원문기사 제목과 다른 “화행(speech act)” (Searle)이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화행의 전환이 서법(modality)의 전환과 함께 일어나면서 텍스트 생산자가 명제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표현하는 자질들도 전환된다.¹⁹⁾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관련 번역기사의 제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화행은 ‘단언(assertion)’이다. 단언은 객관적인 사실을 단순히 보고하기 보다는 사실에 대한 화자/저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이원표 215).

19) 여기서 중요한 서법은 인식적 서법(epistemic modality)이며, 인식적 서법이란 서술 내용의 진위에 대해 화자가 가지는 확실성, 개연성,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영어에서는 서법이 주로 조동사, 문형 등에 의해 실현된다.

(10)

(ㄱ) A Turning Point?

남북한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다

(ㄴ) The Method to the Madness

북한의 狂氣 제대로 읽으면 평화의 길 있다

(ㄷ) International Diplomacy with North Korean Characteristics

김정일의 구식 외교로의 회귀

한반도에 좋은 조짐이 아니다

(10ㄱ)은 ‘질문’이 ‘단언’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TT 내용의 진위에 대해 텍스트 생산자가 가지는 확실성의 정도가 ST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TT에서는 ‘전환점(turning point)’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첨가하여 ‘남북한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전경화되어 있다. (10ㄴ)의 ST에서는 ‘狂氣를 이해하는 방법(The Method to the Madness)’이라는 내용이 단순히 ‘명사구’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TT에서는 ‘단언’ 화행으로 광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TT에서는 ST와 달리 북한의 광기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것과 ‘평화의 길이 있다’는 것이 전경화되어 있다.

(10ㄷ) ST의 ‘북한식 국제외교(International Diplomacy with North Korean Characteristics)’라는 명사구가 TT에서는 ‘김정일의 구식 외교로의 회귀 한반도에 좋은 조짐이 아니다’라는 단언으로 전환되었다. ST의 ‘북한식(North Korean Characteristics)’이라는 표현은 마치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인 속성이 고정적, 항구적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TT에서는 ‘북한식 국제외교’가 아닌 ‘구식 외교’로 제시되고 있어 ‘새로운 외교’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암시적 의미는 ‘회귀’라는 표현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ST에서 고정적이고 부정적으로만 제시되었던 북한이 TT에서는 ‘변화’, ‘새로움’이라는 틀로 제시되고 있으며, ‘한반도에 좋은 조짐이 아니다’라는 단언의 화행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단언’ 이외에 다른 화행으로의 전환도 관찰할 수 있다.

(11)

(ㄱ) Escaping into China

북한 탈출한 ‘기아 난민’에 국제 사회 더 많은 관심을

(ㄴ) Playing Mind Games

북한의 고단수 심리전에 남한이 말려들었나

(11ㄱ)은 인터뷰기사의 제목으로서 TT에서는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제안(suggestion)’ 화행으로 제시하고 있다. ST에는 주체/주어 없이 ‘중국으로의 탈출(Escaping into China)’이라는 내용만 있지만, TT에서는 생략된 주체/주어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체로 ‘선택’된 표현이 ‘북한주민’, ‘탈북자’가 아닌 “북한 탈출한 ‘기아난민’”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행동’을 기술한 ST와 달리 TT에서는 ‘북한의 기아’, ‘난민’, ‘국제사회의 관심 호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11ㄴ)에서는 TT가 ‘질문’ 화행을 사용하고 있다. (11ㄴ)의 ST는 주체, 대상 등에 대한 언급이 생략된 채 ‘심리조작/심리전을 함(Playing Mind Games)’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TT는 ‘북한’이라는 주체, ‘남한’이라는 대상 그리고 ‘말려들었나’라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ST가 북한의 행위 중심의 기술이라면, TT는 북한의 전술에 남한이 말려들었는지를 묻고 있다.

3.3.6 직접인용의 첨가 및 전환

제목에서 직접인용은 기사의 특정 부분을 전경화되고 특정 관점 중심으로 본문기사를 읽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에 직접인용이 제목에서 흔히 “설득 전략”(Le 500)으로 사용된다. 『뉴스위크 한국판』 북한 관련 번역기사 제목을 보면 ‘인터뷰 기사’의 제목 중 직접인용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기사에 등장하는 누군가가 말한 내용 일부가 인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원문기사 제목에 나오는 인용문이 한국어 번역기사 제목에 그대로 번역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예, ST의 “Could You Take Us To South Korea?”와 TT의 “우리를 남한으로 데려가 줄 수 있나요?”), 원문기사 제목에 없는 인용문이 번역텍스트에서 사용되거나 원문기사 제목의 인용문과는 다른 인용문이 사용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²⁰⁾

(12)

(ㄱ) “Open Arms, Open Doors”

“임기 중 김정일과 정상회담 기대”

(ㄴ) The Siege Mentality

“북한은 격리된 거대 기형집단”

(12ㄱ)은 김대통령 인터뷰기사의 제목이며 이 기사에서 김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반과 남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ST는 ‘누구나 환영하고, 누구에게나 문호를 개방할 것(Open Arms, Open Doors)’이라는 내용이지만, TT에서는 “임기 중 김정일과 정상회담 기대”라는 다른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즉 ST는 일반적인 ‘개방’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만, TT는 남북문제 중에서도 한국 국민의 가장 첨예한 관심사인 정상회담의 문제를 전경화하고 있는 것이다. TT에서 사용되고 있는 틀은 남북 화해의 틀, 통일의 틀이며, 이와 함께 직접인용이라는 형식으로 남북회담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한국독자들에게 제시되고 있다.

(12ㄴ)은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북한 사람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다룬 기사로서 ST는 ‘피포위(被包圍) 의식(The Siege Mentality)’이라는 내용이지만 TT는 “북한은 격리된 거대 기형집단”이라는, 직접인용을 이용한 제목이다. ST에서는 북한이 심리적으로 포위상태에 있는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피포위

20) 『뉴스위크 한국판』의 번역기사 제목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인용 부호 사용의 불규칙성이다.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에 의하면, 『Newsweek』와 『뉴스위크 한국판』 양쪽 모두에서 인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중앙일보 31),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Where are the Bodies?”

끓어죽은 사체들 어디에 있나?

ST의 의미를 토대로 한 TT이지만(‘사체(bodies)’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끓어죽은’)이 제공) TT에서는 인용부호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예는 전체 자료 중 1건밖에 없었다.

(被包圍) 의식(The Siege Mentality)'이라는 '이름(naming)'으로 전경화하고 있지만, TT에서는 오히려 '북한'이라는 주체가 명시되고 '격리된 거대 기형집단'이라는 비교적 평이한 기술 중심으로 제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TT에 인용된 것은 기사 본문에서 실제로 사용된 표현이 아니며, 기사 내용의 요약이다. 즉 직접인용이라는 형식이 본문 내용의 일부를 요약해주고, 이를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뉴스위크 한국판』 북한 관련 번역기사의 제목과 원문 기사 제목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목은 기사의 주제나 요지를 가장 명료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특정 언론기관의 관점을 표현하거나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특정 방식으로 유도한다. 『뉴스위크 한국판』에서는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번역기사의 제목을 번역하기 보다는 주로 편집과정에서 새롭게 구성한다. 물론 북한 관련 번역기사의 제목이 원문기사와 의미적으로 유사하게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목은 다른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제시된 제목에서는 주체화, 명명과 지시의 전환, 서술의 전환, 명시화, 화행과 직접 인용의 전환과 같은 담화적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담화적 특징은 원문기사 제목에는 없는 어휘, 구, 절, 명제 등이 번역기사 제목에서 첨가되거나, 원문기사의 특정 표현이 생략 또는 전환됨으로써 구현된다. 그 결과 번역기사의 제목은 '남북화해', '남북통일', '배고픈 북한'의 틀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을 보였고, '남북 화해'와 '남북통일'의 틀에서는 주로 '통일', '햇볕', '평화', '유화공세', '변화' 등의 어휘가 사용된 반면, '배고픈 북한'의 틀에서는 '배고픈', '기아난민', '굶주린 사람들', '북한의 굶주린 아이들', '굶어죽은 사체' 등이 사용되었다.

원문기사 제목이 북한을 호전적, 적대적 타자로 규정한 경우에도 번역기사 제목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완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번역

기사 제목에서 한국은 더욱 긍정적으로 묘사되었으며,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햇볕정책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뉴스위크 한국판』의 북한 관련 번역기사에서 북한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원문기사에 비해 완화된다는 강지혜(Kang, *Recontextualization* 235)의 주장은 제목에 있어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 관련 번역기사의 제목달기에서 관찰되는 의미와 관점의 전환은, 원문 기사가 한국 사회 그리고 언론기관의 담화관행 중심으로 재맥락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국내 언론의 대북보도에서 북한을 적대적, 위협적인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보도, 안보 논리로 반복을 주장하는 보도가 ‘일탈의 영역’이 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위크 한국판』은 북한을 타자화하는 담화관행에 토대를 둔 원문 기사를 번역과정을 통해 ‘합법적 논쟁의 영역’ 또는 ‘합의의 영역’의 기사로 제시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²¹⁾ 이런 상황에서 『뉴스위크 한국판』의 새로운 제목은, 해당 기사를 ‘합법적 논쟁의 영역’ 또는 ‘합의의 영역’으로 재맥락화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새로운 제목은 새로운 해석의 틀이 되어 번역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뉴스위크 한국판』 제목의 실현 양상은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에서 제시된 제목달기의 원칙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우선 스타일북에서는 제목이 서술형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명사형이나 의문형으로 끝나는 제목의 형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제목이 실현된 양상을 보면 ‘확대명사형’이 가장 많이 발견된다. 또한 제목은 간결하게 붙이고, 영문판 레이아웃의 길이에 맞춘다는 규범도 실제 제목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제목이 간결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영문판 레이아웃에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긴 제목도 많다. 이는 곧 번역기관의 지침과 실제 텍스트의 실현 양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기사의 제목달기는 언어 전환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목달기의 주체인 언론기관의 이데올로기와 담화관행, 번역텍스트 제작과 관련된 제도적 번역의

21) 이는 물론 『뉴스위크 한국판』의 독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며, 특히 잡지 발행 부수, 판매 및 광고 수익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성, 번역기사 독자의 고려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뉴스위크 한국판』이라는 번역시사지 중심으로 제목달기의 문제를 고찰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텍스트 유형,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한 번역텍스트 제목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5. 「번역텍스트 제작의 사회적 조건과 제도적 번역자의 역할」. 『번역학 연구』 6(2): 7-29.
- 김용진. 2003. 「신문 사설 제목의 사회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1(1): 31-54.
- 김희진. 1997. 『신문 헤드라인 뽑는 법』.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박갑수. 1990. 『신문기사의 문체』.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박정순. 2000. 「뉴스의 객관성과 이념성: 남북화해시대의 남북언론의 대립과 변화」. 『언론과 사회』 29: 6-42.
- 윤영철. 2000.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언론과 사회』 27: 41-81.
- 이영애. 2002. 「한국 언론의 대북관 비교연구: 양대 서해교전의 보도태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6(2): 193-220.
- 이오현. 「‘위기’ 부추기기: 북한 핵문제에 대한 <New York Times> 보도 태도」. 『언론과학연구』 2(3): 185-212.
- 이원표. 2005. 「신문 사설에서의 이념 표현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논쟁의 경우」. 『사회언어학』 13(1): 191-227.
- 이준용. 2004. 「언론매체 이용 및 해석적 틀이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48(1): 28-56.
- 정여훈. 2006. 「신문제목의 유형 및 그 실현 양상」. 『사회언어학』 14(1): 85-114.
- 정태철. 1995. 「제목소비자의 증가와 신문제목의 이해도」. 『한국언론학보』 33:

203-228.

중수선. 2005. 「온라인 신문 기사의 제목과 개요 효과」. 『한국언론학보』 49(2): 5-32.

중앙일보. 1997. 『Newsweek 한국판 스타일북』. 서울: 중앙일보.

한국언론재단. 2001. 『해외매체의 국내 수용 현황: 라이선스 잡지와 외국 영어 매체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언론재단.

한국편집기자협회. 2006. 『신문, 세상을 편집하라』. 서울: 한국편집기자협회.

한동섭. 2001. 「북한관련 보도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지형과 실천 방식」. 『언론과학연구』 1(2): 250-294.

Bakhtin, Mikhail. 1981. *The Dialogic Imagination*.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Baker, Mona.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arold Somers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175-86.

Bell, Allan. 1991. *The Language of the News Media*. Oxford: Blackwell.

Blommaert Jan. 2005. *Discourse: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um-Kulka, Shoshana. 1986.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Translation," in Juliane House and Shoshana Blum-Kulka (eds) *Interlingu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übingen: Narr, 17-37.

Bucaria, Chiara. 2004. "Lexical and Syntactic Ambiguity as a Source of Humor: The Case of a Newspaper Headlines." *Humor* 17(3): 279-309

Dor, Daniel. 2003. "On Newspaper Headlines as Relevance Optimizers." *Journal of Pragmatics* 35: 695-721.

English, Earl. 1944. "A Study of Readability of Four Newspaper Headline Types." *Journalism Quarterly*. 21: 217-29.

Fairclough, Norman. 1992. *Discourse and Social Change*. Cambridge: Polity Press

Fairclough, Norman. 1995. *Media Discourse*. London: Edward Arnold.

Fairclough, Norman. 1998. "Political Discourse in the Media: An Analytical

- Framework," in Allan Bell & Peter Garrett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Oxford: Blackwell, 142 – 63.
- Fairclough, Norman. 2003. *Analyz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London: Routledge.
- Flowerdew, John, David Li and Sarah Tran. 2002. "Discriminatory News Discourse: Some Hong Kong Data." *Discourse & Society* 3:319 - 345.
- Foucault, Michel. 1972.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trans. by A. M. Sheridan Smit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Fowler, Roger. 1991. *Language in the News: Discourse and Ideology in the Pres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Garrett, Peter and Allan Bell. 1998. "Media and Discourse: A Critical Overview," in Allan Bell & Peter Garrett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Oxford: Blackwell, 1-20.
- Garst, Robert E, and Theodore. M. Bernstein. 1982. *Headlines and Deadlines*. 4th. e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Geer, John G. and Kim F. Kahn. 1993. "Grabbing Attention: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Headlines During Campaigns." *Political Communication* 10: 175-191.
- Goffman, Erving.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 Halliday, M.A.K.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Halliday, M.A.K. 1994.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2nd ed. London: Arnold.
- Hallin, Daniel. 1986. *The Uncensored War: The Media and Vietnam*.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wang, Balbina. "Anti-Americanism in Korea."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20(2): 61-73.
- Iarovici, Edith and Rodica Amel. 1989. "The Strategy of the Headline." *Semiotica* 77: 441 - 59.

- Kang, Ji-Hae. 2007. "Recontextualization of News Discourse: A Case Study of Translation of News Discourse on North Korea." *The Translator* 13(2): 219-242.
- Kang, Ji-Hae. in press. "Institutional 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2nd ed. London and New York, NY: Routledge.
- Kniffka, H. 1980. *Soziolinguistik und empirische Textanalyse. Schlagzeilen- u. Leadformulierung in amerikanischen Tageszeitungen.* Tübingen: Niemeyer.
- Kronrod, Ann and Chit Engel. 2001. "Accessibility Theory and Referring Expressions in Newspaper Headlines." *Journal of Pragmatics* 33(5): 683-699.
- Le, Elisabeth. 2003. "Information Sources as a Persuasive Strategy in Editorials." *Written Communication* 20: 478-510.
- Lindemann, Bernard, 1990. "Cheap Thrills We Live By: Some Notes on the Poetics of Tabloid Headlines." *Journal of Literary Semantics* 19(1): 46-59.
- Mills, Sara. 1995. *Feminist Stylistics.* London: Routledge
- Price, Vincent, David Tewksbury, and Elisabeth Powers.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s." *Communication Research* 24: 481-506.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eisigl, Martin and Ruth Wodak. 2001. *Discourse and Discrimination.* London: Routledge.
- Richardson, John E. 2007. *Analyzing Newspapers: An Approach from Critical Discourse Analysis.* New York: Palgrave.
- Searle, John R. 1969. *Speech A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Edward. 1999. "Leadlines May Be Better than Traditional Headlin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0(1): 55-64.

- Tannenbaum, Percy. 1953. "The Effect of Headlines on the Interpretation of News Stories." *Journalism Quarterly* 30(2): 189-197.
- Teo, Peter. 2000. "Racism in the News: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f News Reporting in Two Australian Newspapers." *Discourse & Society* 11(1): 7-49.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Valdeón, Roberto. 2007. "Translating News From the Inner Circle: Imposing Regularity Across Languages." *Quaderns. Rev. trad.* 14: 155-167.
- van Dijk, Teun. 1998. "Opinions and Ideologies in the Press", in Allan Bell & Peter Garrett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Oxford: Blackwell, 21-63.

[Abstract]

An Analysis of Headlines of Translated News Magazine Articles

Kang, Ji-Hae
(Ajou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link between the reperspectivizing role of headlines in translated news magazine articles and the institutional translational context in which translation is carried out. Based on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framework and drawing on the concept of institutional translation, the study examines how North Korea is discursively constructed in the headlines of *77 Newsweek Korea* magazine articles, in comparison to the corresponding *77* English language headlines of the source articles in *Newsweek*. The analysis suggests that discursive strategies such as agentivization, explicitation, shifts in naming/referring, predication, speech act, and speech representation are utilized cumulatively in the headlines of translated texts to alleviate, transform, bleach and silence discourses that portray North Korea as the belligerent Other. Of special importance is the addition of words that either belong to the lexical repertoire designed to describe "reconciliation"/"reunification" or "North Korea as unfortunate brethren." The findings suggest that headline writing is an arena in which ideologies and voices are contested.

▶ Key Words: headline, institutional translation, news discourse, ideology, North Korea

강지혜

아주대학교 인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조교수

jihaekang@ajou.ac.kr

관심분야: 제도적 번역, 미디어 번역

논문투고일: 2008년 5월 8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